

# 보 도 자 료



\*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.

## ◆ 대외협력팀

팀장 이지영 / 담당 조운호

Tel : 032-770-8630, 8631

Fax : 032-770-8609

◆ 2015. 11. 2.(월) 배포

◆ 총 3 쪽 (본문 2쪽, 별첨 1쪽)

## 극지연구소, 우리나라 북극연구의 지평 넓힌다.

### - 「북극연구 컨소시엄」 창립총회 및 국제세미나 개최 -

- 극지연구소(소장 김예동)는 11월 3일 여의도 국회에서 「북극연구 컨소시엄」 창립총회 및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. 북극연구 컨소시엄은 해수부, 미래부, 외교부, 산업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세운 북극정책 기본계획(13.12)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극 관련 30여개의 산·학·연 기관이 참여한다.
- 북극은 최근 온난화로 인한 해빙의 급격한 감소, 북극항로에 대한 경제적 가치 재조명, 자원 개발 등 글로벌 이슈가 대두되면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. 이미 선진국들은 과학 연구와 함께 산업활동 측면에서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북극해의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.
- 우리나라도 이번 컨소시엄 구축을 통하여 연구기관 간 정보

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북극연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북극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. 또한 융·복합 연구 수요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 수행을 지원해 과학·산업·정책이 융·복합된 북극 연구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.

- 창립행사에서는 미국의 북극연구 컨소시엄(ARCUS), 일본의 북극연구 컨소시엄(JCAR), 그리고 러시아의 남북극연구소(AARI)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북극과 관련한 연구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.

- \* ARCUS : Artic Research Consortium of the United States(1998년 설립)
- \* JCAR : Japan Consortium for Arctic Environmental Research(2011년 설립)
- \* AARI : Arctic and Antarctic Research Institute

- 극지연구소 김예동 소장은 “우리나라는 2013년 5월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면서 북극연구의 전환점을 맞이했으며, 이번 컨소시엄 구축은 북극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반이 될 것”이라며, “2017년 내에 융복합 연구수요를 도출하여 시범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북극연구기관 간의 상호협력을 촉진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※ 붙임 1. 북극연구 컨소시엄 구축·운영 계획

극지의 한국,  
미래의 도전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극지연구소 대외협력팀 이지영(☎ 032-770-8630 / 010-3602-9305) 또는 조운호 담당(☎ 032-770-8631 / 010-4729-240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 요약 >

**목적**

**북극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산학연 융복합 협력 기반 마련**

**주요  
기능**

**연구방향 설정**

- 북극연구 중장기 방향 도출
- 북극연구 전략 수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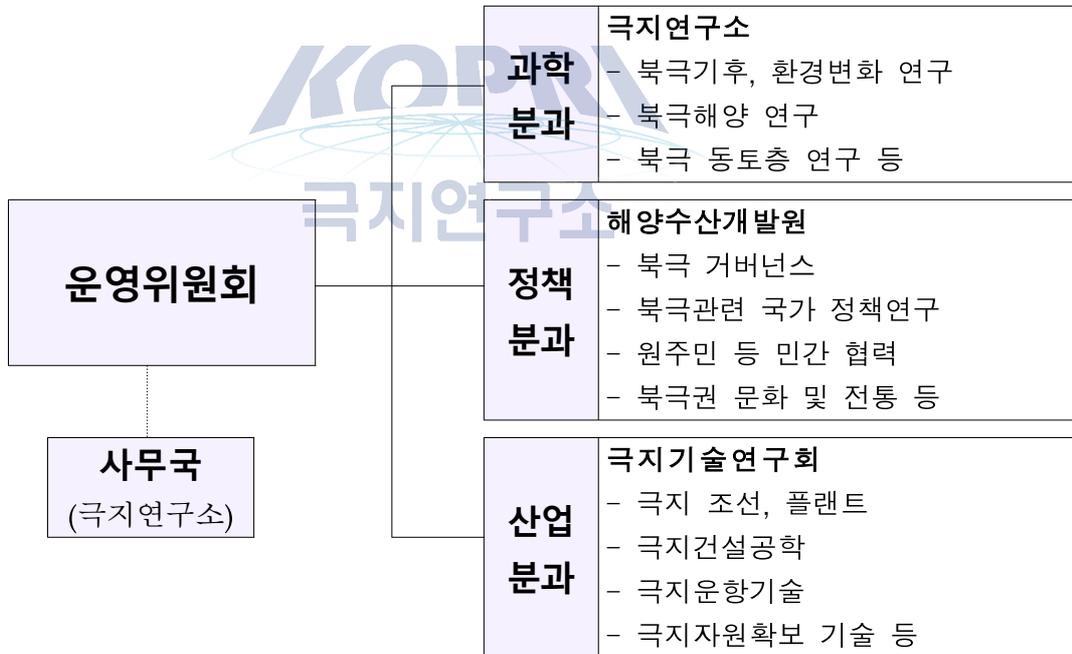
**연구 지원**

- 융복합 협력연구 수요 도출
- 융복합 협력연구 기획 지원

**협력 지원**

- 온-오프라인 협력 체계 마련
- 국제 기구 및 북극권 국가 동향 분석

**조직  
체계도  
(안)**



**구축  
계획**

**준비 단계 ('15)**

- 사무국 설치
- 참여기관 모집 및 운영규정 수립

**구축 단계 ('16~'17)**

- 융복합 연구 수요 도출 및 기획 지원
- 온-오프라인 협력 체계 구축

**활성화 단계 ('18~)**

- 운영 체계 안정화
- 국제 협력 체계 구축